

# 44

##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

사도행전 3장 11절~4장 22절

성문에서 평생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. 앉은뱅이는 한 푼이라도 얻기 위해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. 베드로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. 그래서 말했습니다.

“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,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.”



앉은뱅이는 그 말을 듣고 발에 힘이 생겼습니다.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며 기뻐하였습니다.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,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.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.

“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.

여러분이 오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시면,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.”

사람들은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.

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 
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 
(골로새서 4:3)



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 붙잡아 가두었습니다.  
그러고는 높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.  
베드로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.

“하나님께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. 예수 이름 외에는  
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.”

제사장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무섭게 말했습니다.  
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말했습니다.

“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.”

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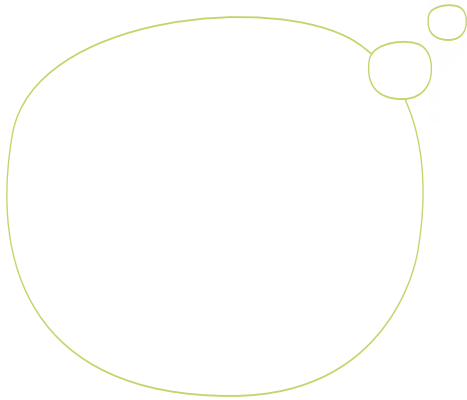


# 오늘의 공부

1. 베드로는 성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무엇을 선물했나요? (      )

- ① 금은 동전    ② 병이 나아서 걷게 했다    ③ 헬체어

2. 걷게 된 앓은뱅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?



3. 아래 내용을 읽고 알맞은 것끼리 서로 연결해 보아요.

- |     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앓은뱅이       | ● | ● |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            |
| ② 예수 이름      | ● | ● |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            |
| ③ 제사장, 사두개인들 | ● | ● |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         |
| ④ 증인         | ● | ● | 하나님을 믿는 외적인 모양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|

4.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,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나요?

---

---

#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

1.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.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.



-----

-----

-----

이   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  이로다 (사도행전 2:32)

2.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. 전도계획을 세우고 전해봅시다.

전도하고 싶은 사람 : -----

전할 내용 : -----

-----

전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 : -----

전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? -----

3.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지 적고 선생님과 교제해요.

-----

-----

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  을   하라 (마가복음 16:15)

4.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. 잘 생각해 보고 선생님과 교제해요.



## 예 화

### \* 전도지

한 선교사가 아시아의 힌두교 나라에서 어느 크리스찬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한 절뚝발이 거지가 와서 동냥을 했습니다.

선교사는 동전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.

“당신의 전도지를 그에게 허비하지 마세요.”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.

“그는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.”

그러나 놀랍게도 3일 후에 이 절뚝발이 거지가 선교사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.

그는 선교사가 사는 곳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곳에 오기 위해 약 13km을 걸어왔고,

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단지 다른 전도지를 원했습니다.

거지는 새로운 전도지를 받은 뒤, 그 집 문 앞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그것을 공부했습니다.

그는 다시 와서 말하기를 “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적혀 있는데, 저도 그 책을 좀 빌려 볼 수 있을까요?”

그 결과 한달 간의 교육을 받고 절뚝발이 거지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.

그는 기독교 서점의 경비하는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책꽂이의 책을 읽었습니다.

부모님  
난

선생님  
난